

대형계열기획보도—백성이야기 (160)

사회공익에 앞장서는 전통결혼민속문화 지킴이

— 고난을 딛고 사회자의 꿈 이룬 ‘시골 소년’ 정호국의 칠전팔기 도전기

“사회자는 신랑신부 및 아기와 가족들에게 행복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열정과 유머감과 진심을 담아 지적에서 그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할 때가 가장 보람잡니다.”

정호국은 준수한 외모에 재치있는 입담, 유머감 넘치는 사회 풍격으로 연변에서 알아주는 경력 13년 차 베테랑 사회자이다.

연변은 물론 길림, 장춘 등 성내를 벗어나 심양이나 할빈, 더 멀리는 서안, 장가계 심지어 한국에까지 출장 사회를 다니면서 매달 평균 20~30건의 결혼식과 아기 돌잔치, 환갑잔치, 회사 년말총회 등 다양한 행사의 사회를 소화하고 있다. 그동안 어렵잡아 2,500회 이상의 사회를 했다는 정호국의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2026년초까지의 본식 사회 일정이 촘촘히 적혀 있다.

최근, 기자 일행은 사회자 정호국 씨 (37세)를 만나 시골 소년에서 연변의 대표 사회자로, 애심행사에 앞장서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일조하기까지 고난을 딛고 꿈을 이룬 그의 칠전팔기 도전기를 들어보았다.

◆ 오지에서 싹트 예술의 꿈, 하지만 현실은 잔혹해

통정시 세린하향 (현재 로투구진에 합병) 세린하촌에서도 다섯가구만이 살고 있는 오지 산속에서 태어난 정호국은 6살부터 마을 친구랑 둘이서 손 잡고 의지하면서 1시간을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등교길은 항상 해뜨기 전에 출발해야 했고 겨울이면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야생동물이 출몰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항상 마중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은 이미 밭일을 나가셨고 밭상엔 아침밥과 도시락이 차려져있었지요.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담배농사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는 부모님을 도와 어린 호국은 방과후면 저녁밥을 지어놓고 집안일을 거들면서 철든 아이로 자랐다.

정호국은 소학교 때 학교의 6.1절 경축대회나 웅변대회, 문예공연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중학시절 학교 운동대회 때면 학교의 유일한 하급 남자 문예위원으로 활약했다. 무대에서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어린 호국의 마음에 연예인의 꿈을 싹 틔워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정호국은 연변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합격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중등전문학교 컴퓨터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그의 꿈은 접은 적이 없었다.

◆ 방황 속 발견 : 노래방 복무원에서 TV 판매원까지

한창 호기심이 많은 17살의 소년 정호국은 “노래방 복무원으로 일하면 월급을 500원 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큰돈을 벌어 예술의 꿈을 펼치고픈 마음에 학업을 그만두었다. 그때 어린 고국에 500원은 ‘거금’이었다. 정호국은 노래방에 출근하면서 뜻밖에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될 줄은 몰랐다.

2008년, 고정적인 일자리가 부러웠던 20살의 정호국은 연변국제무역회사에 TV 판매원으로 전직했다. 그의 친절한 미소와 뛰어난 언변은 수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담 ‘매출왕’으로 올라섰다.

“장사가 잘될 때는 보상이환판매 행사로 하루 100대 이상 판매한 적도 있었는데 진짜 뿌듯했어요.” 또한 회사 년말총회 때면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면서 동료들의 절찬을 한몸에 받았다.

“기본 월급이 500원이었는데 ‘매출왕’으로 매달 5, 6천원씩 받으면서 뿌듯했지만 예술의 꿈을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지요.”



▲ 정호국 사회 장면

◆ 이벤트회사의 힘든 창업과 첫 사회자 도전

2010년, 고정일자리인 줄 알았던 판매원 작업이 그냥 임시직인 걸 알게 된 그는 판매원을 그만두고 두 친구와 동업하여 이벤트회사를 차렸다. 부모님이 매달 보내주신 한화 20만원 (인민폐로 약 1,200원) 을 모아 창업자금으로 썼다.

“당시 히트작인 드라마《꽃보다 남자》에서 령감을 얻어 꽃길 세팅과 풍선 장식을 했어요. 창업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단지에서 전단지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비원들에게 발각되어 다시 한집 한집 돌면서 이미 배포한 전단지를 전부 뜯어내는 고역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개인집 차고를 사무실로 임대하여 한달에 한번씩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운영하다가 신세기빌딩에서 오피스텔을 세달고 사무실을 집 삼아 동업자 셋이 같이 먹고 자고 일했다.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백화상점에 가서 좋은 옷 한건지를 사서는 외출할 때마다 셋이서 돌려가면서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고 나가면 남은 두 사람은 집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런어를 하면서 ‘신발이 없어 테이트를 못 나간 적’도 있었지만 그때의 경력이 정호국의 끈기를 더욱 단단히 했다.

정호국의 사회자 데뷔는 2012년 11월, 5촌 외숙의 결혼식이었다. “엄정 떨렸어요. 사전에 유명 사회자들의 결혼식 사회 비디오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면서 외우고 모방하고 연습했지만 막상 수십명 하객들 앞에 나서고 보니 많이 떨렸어요. 외숙이 ‘잘한다’고 격려했지만 스스로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초기에 많은 지인들이 그를 응원해줬지만 정작 행사 때가 되니 그를 찾겠다던 사전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베테랑 사회자들을 청하더라단다. “내 자식이 결혼한다 해도 TV에 얼굴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는 프로들한테 맡기겠다. 역을하면 너 스스로 능력을 키워.” 투덜거리는 호국이를 향한 어머니의 따끔한 충고가 그의 성장 동력으로 되었다.

그후 정호국은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고 관련 영상을 수백번 돌려보면서 발성, 제스처, 표정을 연구했다. “중요한 어구들을 적어서 밤새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사회자는 관객과 호흡하는 직업이니까요.”

◆ 고마운 두 멘토를 만나 사업 전성기를 맞다

2015년, 정호국은 지인들과 합작하여 제작한 연변판 미니영화 《진상그녀》와 《신입이》에 출연했는데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순식간에 수만명의 팬이 생기면서 방방곡곡에 이름이 알

려졌다. 하지만 갑작스런 인기를 누리면서도 초심을 잊지 않았다. 사람들이 믿고 불러줄수록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연변주화술협회 서방홍 회장을 찾아가서 발성과 어휘 화술 기교를 능숙히 장악했으며 연변의 유명 가수 량춘화를 찾아가 무대매너, 눈빛처리, 표정관리 등등을 배우면서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았다.

“저에게 있어서 두분은 멘토이자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지요.” 정호국은 두 멘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사회를 시작하여 3년 만인 2015년부터 전성기를 맞이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만의 웨딩홀을 경영하면서 입소문과 위챗, 틱톡을 통해 예약이 쇄도했다.



▲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의 실천을 실행해오고 있는 정호국

초기에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머리가 하얘지며 긴장했던 순간, 손수건으로 구슬땀을 닦아주던 하객 아주머니의 소행에 몽클했던 순간, 하객이 몇 안되는 사연이 있어보이는 결혼식 사회를 맡았다가 보수에서 조용히 몇백원을 부조하던 순간… 등 지난 13년간 수많은 순간의 긴장을 설렘으로, 실수를 경험으로, 그 경험을 밑거름으로 그는 일약 연변 사회업계의 스타덤에 올랐다.

◆ 사회적 기여 : 한마음천사에 심협회와 나눔의 실천

“어린시절 힘겹게 자랐기에 생활하고 고생하는 아이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아이들의 꿈을 향한 길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어요.”

소탈하고 솔직하며 후한 인간미까지 골고루 갖춘 정호국은 애심공익행사에 적극 참가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그는 연변한마음천사에심협회 부회장을 거쳐 당지부 서기로 활약하고 있다. 이 협회는 2016년 연변 특대 폭우 당시 장가계에서 일하다가 고향

에 돌아온 관광가이드들이 재해복구 지원을 하면서 조직된 애심공익 사회단체이다. 9년간의 발전을 거쳐 회원수는 8명으로부터 600여명으로 성장했고 후원학생은 1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협회는 학습에 근면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학 졸업 때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심과 용기를 갖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사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협회는 명절이면 후원학생 가정에 선물 세트를 보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며 겨울이면 후원학생 가정에 석탄을 날라주고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에 성금을 쾌척한다. 로인절 맞이 문예공연을 펼쳐 모은 입장료로 불우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후원학생 가정을 도와 채소밭에 나가서 채소를 따서 팔아주는 등 다양한 애심행사를 통해 물심양면으로 되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미래의 비전 :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사회자

“계속하여 지금처럼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우리 민속문화가 색바래가지 않도록 계승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민속문화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응용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정호국은 타민족과 조선족의 결혼, 외국인과의 결혼 등 다양한 결혼식 사회를 맡아왔으면서 다른 민족이나 외국인들은 조선족의 전통 결혼문화에 대해 매우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고 했다. 그들이 조선족 전통복장을 입고 조선족 결혼예법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칠 때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정호국, “반면 ‘달 모가지를 비트는’ 절차를 취소한다거나 삼폐인을 붓고 케익에 초를 붙이는 행사를 추가하는 것과 같

구순 로병 부부, 61년 만에 아들과 재회



최근 절강성 Ningbo에서 구순 로병 호병요 부부가 61년 동안 헤어져있던 아들 허래강과 성공적으로 상봉했다.

호병요는 올해 91세이고 안해 정명은 94세이다. 호병요는 어린시절 절강성 여요시 통경촌에서 살았고 1950년에 신강 모 부대로 가 건설에 참여했다. 1964년 11월 그는 안해와 함께 신강의 모 부대에서 의무일근로 일할 때 쌍둥이 아들을 보았다.

호병요에 따르면 당시 옆집대에 있던 허소기 부부의 아이가 불행히 요절했는데 이미 반백의 나이에 이같은 불운을 겪은 그들이 더 이상 출산하기에는 가능성이 없어보였다. 이에 호병요 부부는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려워 상의 끝에 쌍둥이 중의 작은아들을 허소기 부부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후에 호병요 부부는 ‘아저씨와 아지미’의 신분으로 아이와 한번 만났지만 약속을 지켜 아들을 데려오진 않았다.

1974년, 호병요 부부는 신강에서 여요시로 돌아와 생활했다. 나이가 들면서 두 로인은 아들과 다시 만나고저 하는 념원이 더 강해졌다. 올해 3월, 이 소식을 접한 여요시 사명홍심자원봉사대의 지원자가 두 로인을 모시고 여요시공안국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 중국신문넷

연길 버스 운전사의 따뜻한 선행

최근 시민 뉴너사는 연길시버스그룹유한회사에 전화하여 “차 번호 H92420 버스 운전사 류소량이 우리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운 인사를 전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날 뉴너사의 아들은 방과후 버스 로선을 잘못 선택해 군분구 (軍分區)에서 공용왕국으로 가는 1번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오후 6시 30분 쯤, 해당 버스 운전사 류소량은 종점에 도착했는데도 뒤좌석의 한 승객이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하차를 안내했다. 그러자 이 승객은 자신은 9중 정류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소량이 이 버스는 9중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라 공용왕국이 종점이라고 말하자 승객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류

소량은 그제서야 승객이 어린이라는 것을 알고 열린 달래기 시작했다. 류소량은 대화에서 이 남자아이는 10살이고 방과후 버스를 잘못 탑승해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도 어두워진 마당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보며 류소량은 그를 혼자 집에 보내기가 걱정되었다. 하여 아이를 회사로 데려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뉴너사와 연락을 취했다. 류소량이 아이를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었을 때 뉴너사는 “하학한 지 몇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아이가 버스를 잘못 탑승할 줄은 몰랐어요.”라며 아이와 함께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본지종합



최근 연변대학부속병원 (연변병원)에서는 ‘세계 신장의 날’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연변병원 신장질환학과 의료진과 혈액투석실 간호단원 간호원들은 대중들의 협업을 측정해주고 건강자문을 실시했다.

/ 연변대학부속병원



/ 유경봉 리전 기자